

# 열린마당

## 불사기금

### 화주동참 분위기 조성부터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생산불교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향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의 당면과제 가운데 시급한 것으로 역경, 포교, 도제양성을 꼽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물적 토대가 견고해야 실현될 수 있다. 아무리 부처님의 무소유 사상을 외친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체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불교중흥을 위한 발전기금의 모금운동이 각계 각층에서 전개되고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종립 동국대학교가 총장의 취임과 함께 1천억원의 재원확보에 나섰다. 일산에 제 3캠퍼스와 종합병원 등을 세우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가 세워지고 경영진단을 통한 과학적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사찰의 재산공개와 수입, 지출 등 회계의 공개가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삼보 정재를 지키고 불교중흥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 및 사찰 단위의 신도조직이 잘 정비되면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나 불교문화화를 기르는 데 많은 불자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불교적 입장에서 우리 모든 불자들이 불교중흥을 위한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원시불교 시대부터 보시는 가장 중요

### 사설

한 바리새이었다. 보시 공덕을 쌓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구제반도를 하는 교화의 기능을 갖는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일조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 언론 등의 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한경에는 수입을 4등분하여 그 중 사분의 일은 빈궁하거나 병든 자에게 보시하도록 하였다. 구사본에서는 수입의 십이분의 일을 저비실에서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교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숨쉬면서 살아온 문화주체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계시는 부처님은 물질적인 보시를 강조하신다. 공정한 분배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서라고 그렇다.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에는 서민 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시도 필요하지만 재벌 불자나 혜택받은 계층 불자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모든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일치 단결된 화합과 보살정신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여기에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에서는 개혁차원에서 현재의 불교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종연, 종법의 정비를 통해

### 현대만평



한뜻으로...

박구원

불사를 수복(修福)과 작복(作福) 기복(祈福)의 불사로 나눈다면 그 기복은 시주자들이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이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불사를 추진할 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결사(結社)를 맺었다. 불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사의 과정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재물과 노동과 기도

### 보광스님



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불사는 한국불교의 불사를 한단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불사는 인재기르기, 사회봉사, 포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같은 중요 불사는 그 중요성만큼 화주의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 인재양성·포교불사에 전불자 참여를 동참자에게 보람주는 방법 모색해야

를 나누어 맡아서 불사에 동참했던 것인데 이는 수복불사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불사는 불사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경향이 짙다. 세상의 변화에 따른 것일지 모르지만 불사의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사를 통한 불사기금조성

이나 작업보다는 권선에 의한 모금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사에 대한 동참의욕의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전국의 사찰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다 통국대와 중앙승가대, 불교TV도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불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동참자가 북을 울며 일회성 동참에 만족하게 하지 말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식이나 학교재의 발행 등이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신적인 만족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수복의 불사 작복의 불사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국대 선학과 교수>

### 전국적으로 사찰을 비롯 신행단체별로 불사가 한창이다.

### 박광서 교수



사부의 일은 보시하라"고 말씀하셨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수입의 5%는 보시하지'는 제한을 한다. 재적사찰이나 신행단체에 운영금으로 1%를 내고 불사등 불교행사에 2%를 보시해야 한다. 또한 불자라면 불교이외의 대사회 복지

### 수입 5% 보시...사회복지에도 관심을 목적 뚜렷하고 신뢰감있게 진행돼야

은 기준이 없다. 때문에 불사나 행사가 계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시는 육바리새 가운데 으뜸가는 보살행이다. 그러나 실재는 어떠한가.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보시금으로 설정해 놓은 불자가 얼마나

있는가는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어느때 보다도 보시운동이 새로 일어나야 할 때이다. 보시교육이 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수입의 반은 생활에 쓰고, 사부의 일은 저축하고, 나머지

에도 수입의 2%를 보시해야 하겠다. 물론 이러한 보시금은 목적이 뚜렷하고 신뢰감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시하는 이나 보시를 받는 이 그리고 보시금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 시론

## 꽃피는 봄이전만...

도심(都心)의 봄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꽃은 필듯 말듯 머뭇거리고 있다. 공기의 오염 탓만은 아닌 성 싶다. 오락 세간의 너무나 암울한 소식 때문일 것이다. 암울할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하다. 사람이 살 인마로 둔갑한 것이다. 교육자가 된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이웃나라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신종종교의 교주가 자신의 예언을 사실로 굳히기 위해 마구잡이로 많은 인명을 앗 았다.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희생자를 낼 뻔 했다. 양자가 공히 사전에 면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한다.

가 드높아 가고 있는 이 때 인성교육이 다름 아닌 저마다 갖고 있는 불성(佛性)의 접근임을 불자는 너 나 없이 자신있게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유불성(實有佛性)의 교리부터 터득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알려야 한다.

### 인성회복 불교도 앞장

이와 같이 불교를 일반교육의 구성점으로 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나 한국 불교의 성공적인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나 우리 불자들이 꼭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에 대한 일반의 인식 이 그 수준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신동훈 (시인·한양대 영문과교수)

80년대 초반의 일로 기억한다. 월간지 <불교사상> 이 주축이 되어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타난 사상적 종교적 계보를 알아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한적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총무원의 위촉을 받아 영어교과서에 드러난 기독교적 내용과 불교적 내용을 비교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두가지 사실로 필자를 놀라게 했다.

첫째는 전자가 직접 간접으로 교과서 전반에 걸쳐 널리 그리고 상당히 깊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것도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친구에게 띄운 편지 내용으로 경주의 풍물을 그리면서 불국사를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범죄의 수는 가속도가 붙은 듯 불어나고 범죄의 양식 또한 점점 더 지능적이며 복잡해진다. 인(因)과 과(果)의 관계를 모르는 무명의 중생이 짓는 악업은 바다 날 줄 모른다. 국고를 축내는 세리(稅吏)들의 행렬에서 자칭 지존파로 알려진 살인광들의 광기에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접해온 범죄로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르다. 가해자가 교육자라는 것과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가 받은 고등교육은 지식의 축적에 불과했다. 지(知)와 행(行)의 엄청난 괴리가 화근이 되었다면 그의 석·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쯤에서 우리 불자는 불교와 현대교육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목소리

중재 사실은 당시 문교부의 교과서 심의위원 중에 불교신도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교는 이렇게 사회 이모 저모에서 그들의 관심 밖으로 자연스럽게 가차없이 밀려나고 있었다. 서구인 아스퍼스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팔정도(八正道)나 화엄사상의 십지(十地) 보살론의 간략한 해설쯤 고학년 교과서에 포함시킬 만 하지 않은가. 구약성서 시편 23의 상당 부분을 게재할 정도라면 영문판 법구경의 몇줄이라도 소개할 만하지 않은가. 동등 필자는 고독한 고민을 했다. 시중 영자신문에 이 사실을 밝혔던 바 당장에 영문학 교수 한사람에게서 다부진 문해(?) 전화가 걸려왔다.

3월29일로 종단 개혁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세 바탕의 거센 열풍의 힘을 빌려 우리 불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길을 잠시 점검해 보았다.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이 역사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밝은사회 정로구현을 염원하면서, 지심귀멸려 석가모니불.

##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창립법회

이제 중앙승가대학은 도제양성을 위해 설립된 종단의 유일한 최고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은 캠퍼스 이전과 정규대 승격을 통하여 종단과 한국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발원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불교중흥에 사명감을 가지는 동시에 지혜와 추진력을 고루 갖추신 분들의 덕화(德化)에 의해 원만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는 향후 대학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불사가 제불보살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원만히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행사식순

- 1부: 개회식
  - 삼귀의
  - 반야심경
  - 경과보고
  - 청법가
  - 법어(종정스님)
  - 대회사(총무원장스님)
  - 모시는 말씀(학장스님)
- 2부: 발전위원회 출범식
  - 축가
  - 발전위원회 취지문 낭독
  - 발전위원회규정 개요 소개
- 3부: 축하연 및 폐회
  - 발전계획 개요 설명
  - 축사
  - 고문, 발전위원 소개
  - 승락의 말씀
  - 축하공연
  - 교가제창
  - 사홍서원
  - 폐회

■ 일시 : 95. 4. 7. (금) 17:30 ~ 20:30 ■ 장소: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을지로)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71 157  
 ☎ (02) 929-5004, 926-4377, FAX (02) 921-9721